

# 북극항로시대 선점...道, 여수·광양항 거점항만 육성 박차

### 추진속, 경쟁력 강화 방안 집중 논의 병컸던 기지 조성·수리조선 산업 육성

전남도가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여수·광양항을 대한민국 남해안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6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과 거점항만 육성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남도와 광양시,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학계와 항만·물류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전략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 실행 방향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북극항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수·광양항을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 거점



전남도가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는 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전략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 기간이 확대되면서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북극항로 전략 수립 등 관련 정책

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북극항로 개발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북극항로 시대에 대한 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허

브항만 육성 ▲친환경 병컸던 기지 조성 ▲중대형 수리조선 산업 육성 ▲배후 물류산업 및 항만 인프라 확충 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시대 남해안 핵심 거점항만

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양제철소와 여수석유화학단지 등 중국발 공급과잉과 원료·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북극항로 자원을 활용한 원료·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물류비 절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극해 벌크화물(원유·LNG·철광석 등) 수입을 위한 시범항만 지원 방안 발굴과 함께 첨단산업 소재 가공 허브 구축 및 여수석유화학단지의 원료 수급 안정을 위한 구체적 상생 전략을 마련해 여수·광양항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박영태 해양수산국장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상 운송 경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물류 경쟁력의 판도를 바꿀 전략적 기회"라며 "전남도는 광양시,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등과 협력해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항만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 정부 '기름값' 30년만에 가격상한제 꺼내나

### 李 대통령 "부당 폭리 엄단" 강력 지시 범부처,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단속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충격으로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2천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자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12면

하지만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지난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비상조치인 데다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등 감내해야 할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제'라는 조강수를 검토하게 된 건 급등한 국제 유가가 통상 2주 걸리던 시차 없이 국내 석유가

격에 즉각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석유류 제품에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는 즉각 전면 대응에 나섰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매점매석, 가짜석유·혼합판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단속을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법무부도 유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 도입 여부를 놓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해 모든 정책적 옵션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시장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도입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실제 도입에 신중한 이유는 시장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광주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최대 124만원...3개월 집중 치료

광주시는 8일 "난임 부부의 임신·출산을 돕고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난임 부부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44세 이하이면서 마지막 보조생식술(체외수정·인공수정)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남성은 해당 여성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3개월 간 한약 복용 비용과 혈액 검사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24만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지정 한방 병·의원 27곳에서 개인별 검사 결과와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한방 치료를 3개월 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이후 3개월 동안 임신 여부와 건강 상태에 대한 경과 관리도 함께 진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광주시한의사회(062-223-9481)에 문의한 뒤 난임진단서와 참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광주시한의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변은진 기자

## 행정통합 대비 보건복지 정책 선제 대응

### 道, 초고령사회 대응·공공의료 강화 모색

전남도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비해 보건·복지·의료 분야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신미경 전남사회서비스원장, 문희 순천대 교수, 권순석 전남대 교수, 엄미현 전 광주시 광산구 복지국장 등 전남·광주 지역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통합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복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양 시·도민이 체감할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남·광주의 복지서비스와 의료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 통합 이후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초고령 사회 대응 전략 ▲취약계층 보호 및 AI 기반 스마트 돌봄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 기반 강화 등 핵심 분야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동 비전과 단계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행정통합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광주·소관 부서와도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 통합특례시 출범 이후 보

건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행정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시·도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다"며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통합 보건복지 모델을 구축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 전남도, 18일까지 사회조사 실시

전남도는 8일 "지역 1만9천116개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2026년 전남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은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의료 등 총 11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조사는 도내 조사 대상 가구를 선정해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사전 교육을 받은 인원으로 구성되며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통계적으로만 활용된다.

조사 결과는 전남도 누리집(분야별정보·통계정보·전남도 사회조사)을 통해 8월 공표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사회조사는 도민의 생활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 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구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